

2017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15

예수님의 증거의 여덟 방면들의 계시와 체험  
(1)

성경 말씀: 계 1:1-2, 9-20, 7:9-17

- I. 예수님의 증거는 본성에 있어서 금이며(신성하고), 어둠 가운데 빛나고, 서로 일치하는 일곱 금등잔대들이다—계 1:1-2, 9-20.
-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체현으로서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교회들로서 표현되신다. 그리고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출 25:31-40, 속 4:2-10, 계 1:10-12.
  - B.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금등잔대는 실지에 있어서 꽃받침과 아몬드 꽃이 핀 살아있는 자라는 나무이다. 따라서 등잔대는 살아있는 부활의 금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 나무는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하나님께서 실재로서 표현되실 수 있도록, 그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과정에 있어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실재인 빛의 열매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로부터 자라고, 가지뻗고, 싹이나고, 꽃이 핀다—출 25:31, 35, 엡 5:8-9.
  - C. 예수님의 증거, 즉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행 9:4-5, 고전 12:12)인 금등잔대들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형제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계 1:9-10)로서 예수님의 낙인(갈 6:17)이 찍히게 위해 반드시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고전 12:13, 롬 10:12-13, 렘 3:55-56)으로써 예수님의 영(행 16:7)으로 채워져야 한다.
  - D. 금을 쳐서 대를 만든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쳐서 만든 등잔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출 25:31, 골 1:24.
    - 1. 우리가 그 영께서 하시는 내적인 일과 외적인 환경에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한다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호 6:1-3, 빌 3:10 상, 엡 6:20, 창 41:42.
    - 2.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일생을 낭비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분의 다루심을 기꺼이 받아들도록 하시기를 바란다—고후 4:16-18, 12:7-9, 참고: 사 7:14-15, 고후 5:14-15.
    - 3.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때, 큰 빛으로서의 주님을 마주치는가 마주치지 못하는가이다. 고난은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이해 할 수 없을것을 이해하게 한다. —고후 1:8-9, 참고: 엡 1:17, 눅 1:78-79.
  - E. 금등잔대가 빛나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앞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그분의 임재를 확신 할 수 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신다—계 1:12-18, 2:1, 딤후 4:22, 히 7:25, 9:24, 민 6:22-27, 신 31:6.
  - F. 금등잔대의 일곱 등불들이 빛나는 것과, 불꽃 같은 일곱 눈과, 빛나는 눈쇠와 같은 발과, 해가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거니시고 계신 것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시키시는 그분의 목양을 위해,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더 많은 주님의 빛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계 1:14 하-15 상, 16 하, 4:5; 5:6, 눅 1:78-79, 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 편의 제목, 80:1, 3, 7, 15-19.

1.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은 성경에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영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의 안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이다—계 2:7 상, 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2. 빛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 빛은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획득이 된다—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3. 빛비춤을 받기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단일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열정을 다해 주님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빛비춤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4. 빛비춤을 받기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우리 자신을 아무 보류함이나 주저함 없이 주님께 드려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다—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5. 빛비춤을 받기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들, 즉 사물들을 보는 방식들과, 우리의 느낌들과, 우리의 사상들과, 우리의 의견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멈추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극도로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6. 빛비춤을 받기위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혹은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사역자들의 빛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참고: 출 33:11, 14.
7. 빛비춤을 받기위해,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II.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즉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 전체이다. 그들은 하늘들로 휴거되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로써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어린양의 목양을 누린다—계 7:9-17, 엡 1:3, 갈 3:14, 창 12:2, 참고: 계 21:3-4, 22:3-5, 사 49:10.**

- A. 큰무리는 어린양의 피로 산바 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계 7:9 상, 5:9, 롬 11:25, 행 15:14, 19, 고전 6:19-20.
- B. “ 이 사람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 —계 7:14.
  1. 여기 있는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요 16:33.
  2. 어린양의 피는 우리에게 대한 마귀의 모든 비난들에 대응하며 우리가 마귀 위에 승리하게 한다(계 12:11).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함을 위한 피의 열린 원천인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숙 13:1, 요 19:34), 우리는 그 (피의) 넘침 아래 뛰어 들어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고(찬송가 686 장, 영한 동변 찬송가 1006 장, 1 절), 새로워진 마음으로 흰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과 죄 위에 행할 수 있다(영한 동변 찬송가 1010 장, 3 절).
  3. 우리의 겉옷을 빠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자기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생명의 성에 들어갈 권리를 준다—요일 1:7, 계 22:14.

- C. 그 큰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다—계 7:9 하.
1.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겪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또한 물을 공급 받음으로써 얻은 만족을 상징한다—계 7:14, 참고: 요 12:13, 출 15:27.
  2. 하나님의 성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밤낮으로 섬기며 영원한 장막절이신 그분을 누리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계 7:15 상, 3:12, 레 23:40, 느 8:15, 시 92:12-13, 요 7:2, 37-38, 롬 1:9, 골 2:19.
  3. 오늘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는 영원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를 위한 준비이다.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또 우리로부터 나오실 때, 바로 그것이 봉사이다—마 25:19-23, 요 7:37-39.
- D.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계 7:16 상.
1.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되지 않은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고, 만족시키는 생명이신 그분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6:35.
  2. 우리의 영 안에서 영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요 4:13-14, 23-24.
- E. 타는듯한 해나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쬐이지 않을 것이다—계 7:16 하
1. 보좌 위에 앉아계신 어린양-하나님께서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분 자신으로 그들을 드리우실 것이다—계 17:15 하, 고후 12:9.
  2. 하나님께서 드리우신 그들 아래에는 오직 한 종류의 생명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진 생명이다—시 36:7-9, 엡 6:17, 시 91:1, 17:8, 57:1, 룻 2:12.
  3. 여호와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덮으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다스리는 왕이시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들과 같은 사람이시다—사 32:1-2.
- F.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계 7:17 상
1. 목양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목양 아래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 23:1.
  2.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개선 할 수 없으며 항상 우리를 먹이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그분의 체험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신다. 이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리고 집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다. —시 23: 2-6, 계 22:1.
- G.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계 7:17 하.
1. 이시대에 눈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히 5:7, 행 20:19, 31, 시 56:8, 참고: 말 3:16.
  2. 어린양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생명의 물들로 우리를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의 눈물이 씻어질 것이다—렘 9:1, 2:13, 참 15:16, 렘 3:21-25, 55-56.
  3. 슬픔의 날들과 슬픔의 일들이 지속되지 않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시는 축복을 받는다 —요 4:14 하.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에 묘사된  
금등잔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93장, 1116쪽)

